KT 등 2500억 투자…송정역복합환승센터 탄력

금호터미널 등 5개 기업 컨소시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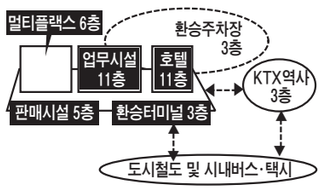
11층 건물에 호텔·영화관·유통 판매시설 등 갖춰

광주시가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KT, ㈜서희건설, 금호터미널㈜, 신한은행, 교보증권 등 5개 기업 컨소시엄의 참여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KT, 서희건설, 금호터미널, 신한은행, 교보증권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KT 컨소시엄은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해 총 부지면적 2만2000㎡에 지하 2층, 지상 11층, 전체면적 14만 8000㎡ 규모의 환승터미널, 주차장, 비즈니스호텔

■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시설 배치도



(150실), 영화관, 상업·유통(대형마트)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신규 입점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5월 광산구의회가 예외적으로 환승센터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KT 컨소시엄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제3자 제안공모를 하고, 추가 제안업체가 없으면 KT 컨소시엄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착공 예정인 송정역사 공사비 534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했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완료 후 추가로 2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백봉기 교통건설국장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완료되면 고속철도, 도시철도, 항공, 버스, 택시,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간 연계가 가능해 호남권 광역교통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과 관광, 업무, 숙박, 상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국토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검찰총장 후보 소병철·김진태·채동욱

후보추천위 3인 추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는 7일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대검 차장과 소병철(55·〃15기·전남) 대구고검장, 채동욱(54·〃14기·서울, 이상 가나다순) 서울고검장 등 3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자 9명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들 3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인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병역, 재산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장성아카데미 특강을 하기 위해 장성군청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대통령에 "불법사찰 근절조치" 첫 권고

총리실·국회의장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 사찰이 정부의 공식조직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미래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도 권고를 했다.

국무총리실에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정순남 전남경제부지사 퇴임

전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사진)가 오는 28일 퇴임한다. 지난 2010년 8월 취임한 정 부지사는 투자유치 업무 등을 담당했었다.

퇴임 후 정 부지사는 목포대학교 교수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 출신인 정 부지사는 광주 사레지오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6회)에 합격 후 줄곧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에 근무해오면서 지역산업진흥, 무역정책, 지역경제정책 업무를 담당해 온 경제통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황식 국무총리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 장성아카데미 특강

"소득자 40%·자영업 50%나 면세…제도 개선을"

김황식 국무총리는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와 급속한 노령화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세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후 국가의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제788회 장성아카데미에 참석,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의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전제한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들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1조달러지만 내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후 상위 10대 품목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량 자급율은 44.5%이고 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60대 이상이 전체 국민의 11.8%(589만명)를 차지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나라의 빚을 늘리지 않고 발전을 이루는 모델 마련이 중요하다"며 "소득있는 사람의 40%, 자영업자의 50%가 면세를 받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총선 패배를 감수하고 개혁을 단행한 독일 슈뢰더 총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강연에 앞서 한센인청착촌인 장성군 북일면 성진농원과 영락양로원을 방문해 주민들과 환담했으며 강연후에는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한 유관 기관장들과 만찬을 가진후 상경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기자 노트

음식 속의 달팽이와 수세미

이은미 경제부 기자

얼마 전 광주에 문을 연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이 식당은 치킨전문점과 카페를 결합한 '멀티 콘셉트 카페'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필자는 가족과 함께 샐러드를 먹던 중 야채 사이로 달팽이가 기어가고 있는 모습에 놀라 비명을 질렀고, 놀란 직원들이 곧바로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다. 직원들은 "음식을 다시 내오겠다" "친환경 야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씻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다. 매니저는 "오늘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서비스 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젊은 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불쾌했던 마음도 누그러졌다. 이들의 사과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업소 입구에서 우리를 한참 기다렸다는 본사 파견 직원은 "언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소비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이들의 행동은 이 업체가 왜 전국적인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

달팽이로 빚어 진 작은 실수가 오히려 이 업체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필자는 비슷한 상황을 또 겪었다. 광주의 한 유명 사우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미역국에서 수세미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랐다. 종업원과 주방 아주머니 등 그 누구 하나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수세미를 바닥에 버렸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 영세업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광주에 대형마트 4곳이 신규 출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전 겪었던 '달팽이' 일화가 떠올라 마음이 편치않았다.

대기업과 지역 영세업체가 동등한 경쟁을 펼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밀려드는 대기업의 자본력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은 실수와 부족함을 채우는 데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변해야 살아 남는다. 그 변화의 첫걸음과 기본은 친절한 미소와 서비스임을 명심해야 한다. /emle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헛소리만 안해도 덜 밉겠다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2000.kr
내일이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훈훈한 설명절 되십시오.

대표이사 최 금 환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